

국내 출판관련 '상' 어떤 것이 있나

출협 주관의 출판상 외에 문체부·서울시문화상 등 다양

좋은 책은 일차적으로 좋은 저자와 출판사에서 출발한다. 그 공과는 주로 저작상이나 학술상으로 포상되는 편이다. 연간 3만여 종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속에서 양서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래 출판관련상은 양서출간을 북돋우는 밑거름이다. 꾸준히 출판의 발전에 몸바쳐온 출판인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계기임에도 대체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아쉬움이 있다.

기획·일러스트 등 부문에도 시상

명실상부하게 출판계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주관하는 시상은 의외로 많지 않다. 독서대상을 제외하고 출판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은 '한국어린이도서상'과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두가지다. 올해로 각각 18회, 14회를 맞는 이 상은 매년 3월~4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 5월에 시상식을 갖는다. 어린이도서상은 저작·일러스트레이션·기획·편집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도서상은 저술·번역·출판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각 출판사에 미리 공문을 띄우지만 신청

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다. 수상의 영예가 판매에는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관심한 것 같다"고 출판협회 기획사업부 장영태 계장은 말한다.

출판협회는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서울시문화상, 세종문화상, 한국만화문화상 등에 좋은 책과 저자, 출판인 후보를 추천한다. 특히 지난해는 출판인들의 수상이 활발했다. 배효선(법문사 대표)씨가 문화예술유공자서훈 옥관문화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정부서훈 표창에 16인의 출판인이 수상했으며, 출판발전유공자포상·한국출판공로상 등에 여러 출판인의 이름이 빛났다.

근래 제정된 아시아·태평양 출판협회(APPA)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제정한 'APPA 출판상'도 출판협회의 추천을 거친다. 94년에 제정된 이 상은 학술·아동도서·문학 및 창작물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APPA 회원국에서 국제적인 출판활동을 통해 나온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도서 전시회 기간중에 치러진다. 올해 한국의 수상출판사



출판관련 상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출판문화상'의 올해 수상자들.

는 금상에 한국프리벨, 은상에 한울출판사가 선정되었다.

한국출판학회(회장 민병덕)에서 주관하는 한국출판학회상도 19회에 이르렀다. 매년 출판문화와 출판학의 발전에 공헌한 출판사와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 수여하는 이 상은 기획·편집부문, 경영·영업부문, 특별공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기봉)의 올해의 '베스트부커'상과 한국출판유통주식회사(이사장 윤석금)에서 시작한 한국출판유통대상도 출판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무시킨다. 올해의 자랑스런 출판경영인, 서점경영인, 베스트부커로 분류하여 시상한다.

가장 오래고 권위 있는 출판상

한국일보사(대표 장재구)가 주관하는 한국출판문화상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출판관련 시상식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출판상이다. 1960년에 제정, 올해로 37회에 이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50년대말에서 60년대, 전집류와 저질평등도서가 범람하던 시기에 양서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의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시상부문도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시상분야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상과 출판상으로 나누어 출판부문은 사전·문고·전집·기획·편집·사료·번역·아동·사진·예술·장정 등에 고르게 상이 돌아가고, 제작부문을 두어 출판사에 시상한다. 올해 저작상 수상자

는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의 신용하(서울대)교수, 《한국양형론》을 저술한 이영란(숙명여대)교수가 받았고, 《한국한자어사전》을 발간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등 20개 출판사와 번역상 수상자 2명이 출판상 상패를 받았다. 제작부문은 일지사가 수상했다.

1회 때는 출판도서 121종에 불과했던 출판문화상은 올해엔 903종 1800여권에 달하는 많은 도서가 출판되고 있다. 역대수상은 2회 수상자인 《한동록》(이병기·김동욱)을 비롯하여 《한국미술사》(김원룡), 《한국의 고활자》(손보기), 《한국문학사》(조동일) 등 79종 84명의 저자에게 돌아갔다. 출판사로는 일조각이 16회에 걸쳐 최다 수상했고, 최연소 수상자는 지난 80년 《법사와 법사상》으로 34세의 나이에 수상한 최중고 교수(서울대 법대)이다.

그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출판관계 시상도 꽤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정한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은 대상·우수상·추천도서 부문으로 나누어 주로 경제경영관계 서적 중에서 선정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간행물윤리상은 공로부문·제작부문·출판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96년 출판부문은 이창세 아세아문화사 회장이 수상했다.

직접적인 출판상은 아니지만 출판부문을 포함시킨 상들도 있다.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하는 '세종문화상'에는 출판·인쇄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엔 장세우 대원사 사장이 수상했다. 그의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한국

국내 출판관련 '상'

시상 명칭	주 관 처	시 상 부 문
한국출판문화상	한국일보사	저작상, 출판상, 공로상
한국출판학회상	한국출판학회	기획·편집부문, 업무부문, 특별공로상
간행물윤리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로부문, 저작부문, 편집부문
한국어린이도서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일러스트레이션, 저작, 기획편집, 특별상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술, 번역, 출판, 특별상
한국출판유통대상	한국출판유통	올해의 자랑스런 출판경영인, 서점경영인, 베스트부커
APPA출판상	아시아 태평양출판협회	학술, 아동도서, 문학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문화체육부	문화, 문학, 미술, 음악, 공연예술, 인문과학, 기초과학, 생명과학, 문학, 미술, 음악, 연예, 교육, 언론, 출판, 건설, 체육
서울시 문화상	서울특별시	국어, 한국어학, 출판, 인쇄부문, 실용과학, 국방안보
세종문화상	문화체육부	저작, 출판, 공로
한국만화문화상	문화체육부	대상, 우수상, 추천도서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의 자랑스런 출판경영인·서점경영인·베스트부커
올해의 베스트부커	한국출판협동조합	
인촌상	인촌기념회	교육, 언론출판, 공공봉사, 문학, 학술, 산업기술

동행하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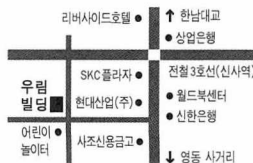
늘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든든한 버팀목의 구실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 위인전 등
운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 학회지 · 교지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7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3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책에 주어지는 각종 상은

양서출간을 북돋우는 밑거름이다.

'출협'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린이도서상' '한국과학기술

도서상' 외에 한국일보사의

'한국출판문화상'은 가장 역사가

오랜 권위 있는 상이다.

앞으로 출판상은 전자출판의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문화상에 포함된 출판문화상은 주로 생생한 취재현장을 기록한 사진집에 시상되는 상이다. 문화체육부가 제정한 '한국만화문화상'에 포함된 출판상은 만화출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동아출판사가 기획과 편집이 돋보이는 책을 출판한 점이 평가되어 수상했다. 그의 한국기자상에도 출판문화 부문이 있고, 인촌상에는 언론출판 부문이 시상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 시상과 질적 출판 요구

이런 출판문화상은 정작 당사자인 출판인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 소수의 특정 출판사에게 시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무관심의 발미가 되고 있다. 예컨대 일조각은 한국출판문화상을 16회나 수상하고 있다. 또 민음사에서 내고 있는 대우학술총서는 각종 저작상의 단골이다. 《소립자와 게이지상호작용》이 77년 제1회 한국과학상대상, 《촉매작용》(진중식)이 한국과학상연구장려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한국의 고생물》(이하영 · 28회 한국출판문화상 제작상), 《자기공명방법》(조성호 · 31회 3.1문화상 학술상)등 많은 수상작을 냈다. 85년에 나온 자연과학저서는 전체가 공동으로 25회 한국출판문화상 제작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우학술총서가 기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중한 연구작업을 통해 나오는 저작이므로 좋은 저작이 많다는 당위성도 가

지고 있는 데다가, 자본이 영세한 여타 중소출판사들이 좋은 책에만 매달려 있을 처지가 못된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명예와 권위는 자본의 논리에 밀려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는 얘기가.

때문에 출판문화상이 좀더 다양한 책들을 수용할 수 있고 각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출판시상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근래에 출판되는 도서들은 대부분이 장정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시각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고, 외국도서의 번역물보다 국내 저작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내용과 외관에서 좋은 책으로 꼽힐 만한 저작들이 계속 출간되어야 출판시상 역시 더욱 알차고 다양해질 것이다.

"출판상은 그 외연을 확대해서 전자출판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작상도 아카데미즘 이외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교양수준의 다양한 내용과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와 한국출판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도서출판까지 대표 박종만씨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 마정미 기자

고칠

《출판저널》제219호 21쪽 기사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화 국제행사에 책정된 정부예산이 50억원이라고 한 것은 순수 정부예산만이 아닌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협찬 등을 합한 것임을 밝힙니다. 만화행사 가운데 정부가 공식 지원하는 것은 서울국제만화제(SICAF)로 1억 6천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문화체육부에서 밝혔습니다.